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2.1.21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터키, 터키군 사망 보복으로 PKK·YPG 조직원 44명 살해
 - 1.15 「홀루시 아카르」 터키 국방장관은 지난 1.8 터키 남동부 산리우르파주에서 발생한 테러로 터키군 3명 사망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PKK·YPG 조직원 44명을 살해했다고 발표
 - * 同 장관은 국경 전역에서 감행된 공격에 대한 보복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
- 佛 법원, 인종차별 발언 극우 정치인 유죄 판결
 - 1.17 佛 법원은 '20.9월 “아동 이민자들은 도둑, 살인자, 강간범 이므로 돌려보내야 한다”며 인종차별 발언을 한 극우성향 대선주자 「에릭 제무르」에 대해 유죄 판결과 벌금 1만 유로(약 1,357만원) 선고
 - * 同人은 '11년 및 '18년에도 “대부분의 마약상은 흑인이나 아랍인”, “프랑스내 무슬림은 침략자”라고 주장하였다가 유죄 판결 선고

미주

- 美, '의사당 난입사태' 배후단체 '오스 키퍼스' 창립자 기소
 - 1.13 FBI는 '21.1.6 발생한 연방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美 극우단체 '오스 키퍼스(Oath Keepers)의 창립자 「스튜어트 로즈」와 회원 10여명을 체포하여 선동음모 등 혐의로 기소
 - * '21.1.6 극우단체·反정부 민병대·백인우월주의 조직 등이 주도하여 800여명이 워싱턴D.C 국회에 난입, 진압 과정에서 참가자 4명과 의회경찰 1명이 사망
- 美, 텍사스주 '유대교 예배당 인질극' 12시간 만에 진압
 - 1.15 오전 美 텍사스주 콜리빌시의 유대교 예배당에 무장괴한 1명이 침입해 유대교 랍비 등 4명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, 당일 21시경 SWAT 등 대응팀이 괴한을 사살하고 인질들을 무사히 구출
 - * AP통신은 인질범이 '08년 아프간에서 '청산가리 이용 테러계획' 메모 소지혐의로 체포되어 미국에서 징역 86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여성의 석방을 요구했다고 보도

아 · 태평양

- 호주 경찰, 가족 대상 테러 선동혐의로 20대 여성 체포
 - 1.17 호주 경찰은 어머니와 여동생을 포함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“사람들에게 충격을 가하거나 살해하라”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테러를 선동한 20대 여성 「알로 브리짓 나모아」(24세)를 체포
 - * 同인은 지난 '15년 시드니 전야제에서 非무슬림에게 흥기를 휘두른 혐의로 3년 9개월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다가 출소

중 동

- 이집트 대통령, 아프리카內 테러 위협 및 관련 지원 자금 차단 촉구
 - 1.16 「엘시시」 이집트 대통령은 ‘아프리카연합 집행위원회 회의’에서 아프리카 대륙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극단주의와 테러는 물론 관련 지원 자금 차단을 위한 자체 전략 구축을 촉구
- 아랍에미리트, 미국에 ‘후티叛軍 테러조직 再지정’ 요청
 - 1.17 UAE 외무장관은 美 국무장관과의 통화에서 “1.17 아부다비內 공항과 정유시설 대상 미사일 공격 등 최근 후티叛軍의 행위는 테러에 속한다”고 주장하며 테러조직으로 再지정해 줄 것 요구
 - * 미국은 후티반군을 테러단체로 지정('21.1)했으나 예멘內 인도적 지원곤란 사유로 철회('21.2)

아프리카

- 나이지리아, ‘트위터 금지령’ 해제
 - 1.13 나이지리아 정부는 ‘20.6.5 이후 이슬람 등 극단·분리주의 활동 및 가짜뉴스 차단을 목적으로 금지했던 ‘트위터*(Twitter)’ 사용을 전면 허용하였으며, 향후 관련 매체의 활용을 양성화하겠다고 발표
 - * 나이지리아 국민 20% 이상이 사용중인 것으로 추정

2021년 1월 이라크 바그다드 연쇄 자살폭탄 테러

- '21.1.21, 10:00경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중심부에 위치한 '밥 알샤르키' 구역 의류시장에서 ISIS 조직원 2명이 연쇄 자살 폭탄테러를 자행, 142명의 사상자 초래(32명 사망·110명 부상)
 - * 사상자 극대화를 위해 첫 폭탄테러 직후, 희생자 구호차 사람들이 모이자 再공격
- 당시, ISIS는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의 공세로 '17년 이후 대부분의 거점을 잃고 세력이 약화된 상태에서, 3년전인 '18년 1월 '바그다드 폭탄테러'를 기점으로 공격활동을 자제중이던 상황
- 이와 관련, 이라크 軍당국은 "ISIS가 패퇴일로에서 존재감 과시와 재기의 발판 확보를 위해 테러를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고"고 분석
- 한편, 사건 직후 이라크 정부는 軍·경찰·정보기관·내무부 등 주요 테러대응 기관장들을 일괄 교체하고, 대테러 정보활동 및 작전능력 향상을 위해 치안·안보분야의 대대적인 개혁*을 추진
 - * 이라크 內 비대조직인 내무부를 혁신하고, 정보실패 방지를 위한 절차 마련에 집중

< 아부 이브라힘 알하세미 알쿠라이(現 ISIS 지도자) >

- (등장배경) '19년 前 ISIS수장 「알 바그다디」가 美軍의 '케일라 물러작전'에 의해 사살되자, 이라크 출신의 「아부 이브라힘 알하세미 알쿠라이」(76년생)가 공식적인 2대 지도자로 등극
- (과거행적) - '02년 모술대학에서 이슬람 율법 관련 학위를 받고, 종교재판관 등으로 활동타 미상 시기 '알카에다' 가입
 - '14년경 「알 바그다디」의 총애를 받아 ISIS 고위지도부에 합류했으며, 해당 시기 이라크 모술市 장악에 큰 공적을 세워 '부지도자' 지위 확보
- (향후전망) 쇠퇴한 조직 재건을 목표로 세계 각지에 퍼져있는 ISIS 추종세력을 규합하고 각종 테러를 선동하는 한편, 특히, 이라크·시리아·이집트 등지를 중심으로 게릴라戰을 통한 세력확장과 '이슬람 神政국가' 再수립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